

계엄군 저격 증언에...“전두환 다시 법정 세울수 있다”

5·18진상조사위, '상부 지휘로 조준사격' 저격수 진술 바탕 기소 가능성 검토
“내란목적살인죄 개개인 소추 사안... 피해자 김용표씨에 대한 책임 물을수 있어”
학계·정치권 “공소시효 문제도 해결돼 민간인 학살 등 혐의 새롭게 기소 가능”

5월 광주를 총칼로 짓밟은 학살 책임자로 꼽히는 전두환(90)씨를 다시 기소하는 게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 진상조사위)가 '계엄군의 저격 활동 증언'을 공개하는 등 새로운 증언이 나오면서다. 당장, 지역 학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간인 학살, 보안사령부가 발포 명령을 주도했을 가능성, 내란목적살인 등 5·18 범죄사실에 대한 새로운 증언이 나오는 경우 학살 관련 책임자들을 다시 법정에서 세우는 방안 등에 대한 법적 논의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18일 5·18진상조사위에 따르면 조사위는 1980년 5월, 11공수여단 저격수로 활동하면서 시민의 목을 조준 사격했다는 계엄군 증언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특정하는 등 새로운 증거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해당 계엄군은 1980년 5월 21일 옛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발포 뒤 재 진입을 하는 과정에서 '차륜형 장갑차(APC)위에 녹색바탕에 흰색 줄 무늬가 있는 운동복을 입고 태극기를 휘두르는' 청년의 목을 조준경으로 조준해 직접 쏘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조사위는 계엄군의 증언을 토대로 검시조사 등을 확인, 당시 현장에서 목 위쪽으로 총격을 입고 숨진 피해자 6명을 찾아낸 뒤 계엄군 증언과 비교해 구체적으로 피해자 김용표씨를 특정했다.

조사위는 피해자를 특정하면 새로운 범죄 사실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증언을 통해 1980년 5월 21일 저격병이 시민군을 조준 사격한 것은 자위권이 아닌 군 상부 지휘로 인한 사격으로 확인된다면 전세를 가해 책임자로 보고 다시 기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내란목적 살인죄의 경우 희생자 개개인의 소추에 관련된 사안으로 당시 판결된 5·18 희생자 25명을 뺀 나머지 희생자에 대해서 진상이 규명되고 새롭게 법인이 특정되면 내란목적 살인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과 지역 학계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온다. 정재배 전 법무부장관의 경우 지난해 “전씨가(내란목적살인죄로) 과거 처벌받은 것은 1980년 5월 27일 희생된 사람에 대해 적용된 것”이라며 “만



5·18 41주년 기념일인 18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진보당 서대문구위원회, 서대문겨레하나 등 서대문구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사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약 전씨가 발포명령자라는 점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로 확인된다면 5월 27일 이전의 다른 사망자들에 대한 내란목적살인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씨 등은 지난 1997년 반란수괴죄, 내란죄, 내란목적 살인죄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당시 1980년 5월 27일 옛 전남도청 진압 작전의 살상 행위를 내란목적살인죄의 유죄 근

거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전남도청 등을 장악하려면 무장시위대를 제압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교전이 불가피해 사상자가 생기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작전을 강행하도록 명령했다”며 “그와 같은 살인 행위를 지시 내지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그 명령에는 그 작전의 범위 내에서는 사람을 살해해도 좋다는 ‘발포 명령’이 들어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계엄군이 5월 21~24일 26명(7건)을 총으로 쏘 살해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이들에게 적용된 내란목적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가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조사위는 이러한 점 등을 들어 김씨 외에 당시 무등극장, 금남맨션 앞 등에서 총을 맞아 숨진 피해자들도 저격병에 의한 살인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자문 법률단을 통해 기소 가능성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헌정범죄시효법)으로 공소시효 문제는 해결됐다”면서 “내란목적 살인죄가 아니라 민간인학살 등의 혐의로 새롭게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5·18 41주년 기념 공연 보니

여고생 일기·취재수첩·시민 성명서 활용 독백 형식의 뮤지컬 드라마에 ‘가슴 찡해’

41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은 당시 상황을 담은 일기·취재수첩·성명서 등을 활용한 공연으로 눈길을 끌었다.

기념식 1막의 기념공연인 ‘기록을 말하다’는 여고생 일기장, 기자 취재수첩, 시민 성명서 등 5·18 당시를 적은 기록물 3편을 영상으로 재구성한 뒤 배우 3명이 독백을 하는 뮤지컬 드라마 형태로 꾸며졌다.

여성 배우가 독백하며 소개한 첫번째 기록은 유네스코 기록물로 등재된 당시 광주여고 3학년생이던 주수연씨 일기(2020년 5월 18일 광주일보 8면)다.

“이 사태를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은 이 사태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여성 배우 목소리로 시작하는 독백 형식의 공연에서는 “쓰러져 가는 많은 시민들을 보았는가. 시민군에게 호응하는 모든 광주시민을 보았는가”, “그 많은 수가 먹을 것에 구애 받지 않을 만큼 시민들의 호응이 컸다는 것을 아는가”, “외곽지대에서 계엄군이 주둔하고 있을 때 그들의 만행을 아는가. 광주시민 전체를 불순분자와 깡패로 본 정부를 인정하는가” 등 당시의 상황을 되짚고 “이와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사태를 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외쳤다.

당시 동아일보 광주 주재기자였던 김영택의 13일간 취재 일기는 독백 형식의 공연에서 두번째 기록물로 소개됐다.

남자 배우는 “19일 오후 4시 광주일고 인근 횡단보도 트럭 11

대 공수대원 250명 뛰어내림. 반대편 전남대 학생 70~80명.”을 시작으로 취재 수첩 일부를 힘있게 읽었다.

“시민들 웅성웅성. 시민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공수부대원 일제히 곤봉. 길가던 신혼부부 영문 모른 채 참혹한 구타.” “비무장 학생에게 사격. 시민들 분개.” 등 명사형으로 끝나는 짙막한 취재 기록임에도 읽힐 때마다 항쟁 참상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세 번째는 ‘1980년 5월 25일 광주시민이 국민에게 드리는 글’(찬란한 민주의 꽃을 피울 그 날까지 총궐기하자)이다.

배우는 “자유와 평등이 공존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이 흐르는 민주국가 건설을 위하여 분연히 쓰러져간 수많은 민주영령께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라며 “우리 광주시민은 모두 하나가 되어 독재를 깨뜨리고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승리의 계기를 잡고 있습니다”라는 1980년 당시 성명서 내용을 다시 읊었다.

마무리는 광주의 5월 씨앗을 바탕으로 민주 꽃을 피우자는 내용이었다. 배우는 “진정한 민주 사회가 건설되길 열망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의 심판이 내려질 그 날까지 우리 모두 이 민주성전에 동참합시다”라며 “다시는 독재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고 이 땅에 찬란한 민주 꽃을 피울 그 날까지 우리 모두 총궐기합시다”라고 외쳤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바위섬’에 눈물 가득... ‘우리는’에 화합 합창

41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선보인 음악도 5·18 영령과 유족들에게 울림을 줬다.

1막 공연의 경우 41년 만에 사진이 발견된 고(故) 전제수 군과 투사회보 필경사로 활약하고(故) 박용준 열사의 사연을 담은 영상과 함께 비올라 5중주도 ‘바위섬’이 연주됐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때 고립된 광주를 바위섬에 빗어 은유적으로 나타낸 곡이라 유가족들을 눈물짓게 했다.

바위섬 작곡가인 김원중씨는 고흥 소록도에서 영감을 얻었는데, 고립된 소록도의 모습이 마치 5·18 당시 광주처럼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2막 공연은 ‘우리들의 오월’을 주제로 5·18 희생자의 아픔을 위로하고 치유를 통해 ‘은 국민이 하나되자’라는 마음을 담아 펼쳐졌다.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오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렸다. 기념공연에서 합창단원이 합평 나비를 하늘로 띄워보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오디션 프로그램 ‘팬텀싱어’ 참가자인 바리톤 김주택씨가 합창단 시합무(시민과 함께하는 뮤지컬 배우들) 소속 9명의 배우들과 함께 가수 송창식의 노래 ‘우리는’을 합창했다.

합창곡 후반부에서는 합평 나비를 날리는 퍼포먼스가 열려 기념식장에는 흰 평화를 상징하는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광경이 연출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튼튼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상가매매 (상무/지주)	신축원룸 (매매)
<p>감정가(시세) 9억원 →매매가 5억3천만원 →보증금 3천만원, 월 250만원 (용 3억6천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심상업지구 메가박스 영화관 앞 사무실, 바, 유희룸, 모든 업종 가능 즉시 업무 가능, 시비 없음 <p>010-6670-9800</p>	<p>월 수익 750만원 연 수익 9천만원 →매매가 13억원 (용 6억5천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실 없음, 임차인 항시 대기 (관리 회사에서 해드림) 당진시 석문산업단지, 화력발전소 부근 대산향 10분 소요 <p>010-4667-9820</p>